03

청소년이 행복한 충남

청소년이 행복한 충남

정하성 | 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교수, 한국청소년학회장

1. 들어가는 말

청소년은 가능한 미래의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충실하며 역경을 극복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하는 존재다. 자신의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며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한다. 청소년은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내일의 가치를 중시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한다. 청소년들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여건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어 자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주어야한다. 충청도청소년들은 조상들이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정신을 바치며 살아온 터전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욕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면서 당당하게 살아왔다. 역사문화성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의 청소년은 공익과 정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하여야한다. 학업, 놀이, 여유의 일상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생활해 가야한다. 항상 생활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사욕보다는 공익을 우선해 가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충청도는 이순신, 김좌진, 최익현, 유관순 같은 애국지사가 많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생활해 가야한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습과 경쟁에 지쳐서 많은 불평을 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생활해가는 공격성이 강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나 현실적으로 학습경쟁 관계에서 따라 오는 모멸감과 부정적인 경쟁력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율성과 참여에 의한 주체성을 영위해 가려 하나 현실적으로 타율과 불참의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은 생존과 생활의 권리를 최대한

으로 만끽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활동, 여가시간, 취미활동 등을 즐기면서 자기 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선택한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친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생활해 가면서 특히 장애인과 소외받기 쉬운 사람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야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당면한 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해 갈 때에 충청도 청소년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갈 수 있다.

2. 청소년의 행복 목표와 노력

1) 청소년의 행복목표

청소년은 진정한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행복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나쁜 기억과 경험을 일찍 버리고 현실의 불평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한다. 확신에 찬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영리한 자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질서 안에 집어넣어 현명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 행복을 얻는다. 가슴 설레이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추구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이유다. 자신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시대에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질을 기르고 지식과 능력을 개발해 가야한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한다.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열정적인 도전이 절실하다. 일찍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이를 추구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한다. 결국은 글로벌시대의 리더로 육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한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줄 알아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현존하는 사물이나 사고를 다른 시각에서 생각하며 접근하는 다양성의 자세가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창의성을 키워서 진취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한다. 제4물결 가치를 존중하면서 존재하는 만물을 사랑하며 인간미를 갖도록 한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국제매너를 갖도록 노력한다. 한편으로는 초 · 중 · 고교의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대안학교를 확대시켜 개성과 특성을 키워 가도록 한다. 전국의 중심지가 충남인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에 따른 행복목표를 설정하려는 일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신체·생리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과 환경에 대해 이해하여 적절한 행복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찾아야한다. 제1차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져야한다. 가정에서 만족을 주어 안정성을 찾고 능력을 계발하고 미래를 발전시켜간다. 청소년에게 원만한 인격의 기반을 닦아주어 후일 성인이 되었어도 문제가없도록 해준다. 타인관계와의 신뢰행동을 일상화하며 습관, 예절, 행동을 통해서 원만한 사회성을 키워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사회화과정을 습득하도록 한다. 물질적·교육적·문화적·인간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격도야에 순기능을 발현 하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성적제일주의 가치를 추구하므로 경쟁심으로 이기심을 재고 시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여야 행복할 수 있다. 학교는 기본적인 삶과 전인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한다. 학교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사회화과정의 중심지이기도하다. 청소년기에는 교우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행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2) 청소년의 자신의 노력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자신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개발하여 성공을 걷을 수 있다. 노력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가능하다. 주변의 성인과 선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기울여서 청소년의 노력을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어야한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모범청소년을 발굴해서 격려해주고 포상해주는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부모와 거성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루에 3가지씩 실천하며 기록한다. 일시적인 일은 의미가 없으므로 기록을 통한 관습화를 이뤄 가야한다. 주변의 교우관계, 학습활동, 경제활동, 환경 등의 작은 고민거리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껴 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자신이 잘못했을 경우 죄송합니다라는 예절습관이 생활화 되도록 한다. 부모와 선생님 선배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하여 타인지향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한다.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할 때에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주말에는 집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햇볕을 쪼이며 사색하고 여유를 즐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정을 쌓아가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신의 포용력과 이해력을 키워서 매사를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서 심사숙고하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해가야 한다. 무한한 자기잠재력을 개발하기위해 지식을 습득하여 정보를 축적해가는 노력을 성실하게 하여야한다. 개발한 경험과 지식이 자신의 합리적인 활용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하여야한다.

3) 청소년지도

청소년이 상호이해하며 결정한 개인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도해준다. 청소년지도자의 개입활동의 타당성, 정확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입의 수정과 지속성이 결정된다. 변화의 지속인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적응과 진취적이어야 한다. 청소년지도는 지도자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하지 말고 현재의 실태와 청소년 자신의 역량에 알맞게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 현재 우리사회 청소년의 방과 후 교육 및 지원활동은 크게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과, 학교에서 2개 부처가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가 있다. 학생청소년의 경우 방과 후 지원활동을 강화시켜서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청소년 각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한다.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 자녀에게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전체 청소년의 10%를 차지하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방과 후 지도를 효율적으로 하여야한다. 불우청소년들이 견제요인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지도자는 항상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주어 역량을 개발시켜 주어야한다. 지역사회단위에서 각 기관이 갖는 기능과 역할의 적정 분담, 교육 및 지원활동의 기능적 결합을 강화 시켜간다. 방과 후 교육 및 지원활동의 효과적인 기능 분담과 역할을 결합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상황과 실태를 진단한다. 충남이란 지역사회 중심 관점에서 방과 후 협력 네트워크 전략 및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육 및 지원활동의 기능중복 실태 진단과 새로운 대안으로 효과적인 방과 후 교육 및 지원활동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충남청소년 지원기관의 기능분담 및 역할협력 방안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하여야한다. 청소년의 미래 과제를 구체화 시키고 방과 후 교육 및 지원

활동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파견한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 및 정부 등 공공영역에서의 향후 추진과제를 탐색하여 지도를 해간다. 청소년지도는 가능성의 현실화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3.나오는 말

오늘의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모,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의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들의 지나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넘치는 열정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바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성격이 공격적이며 감성이 예민하므로 이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다양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적절한 지도가 절실하다. 충남청소년을 비롯해서 모든 청소년들은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앞장서서 보살펴 주어야한다. 일상생활 중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생활하며 취미생활을 넓혀 주어서 만족을 느끼도록 한다. 청소년들도 영육간의 원만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훈련을 시켜야한다. 충남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을 위한 중심이란 특성을 잘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의 바다와 대북한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해력과 참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도해 주어야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무보호자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하는 일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청소년이 앞장서서 환경 넘치는 농어촌을 건설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청소년자신이 미래를 계획하고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청소년들은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와 이상주의를 극복하고 순종하며 성견한 자세만이 참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다. 지도자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려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부모의 소망과 청소년의 소망이 다를 때에는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조절하여야한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의 초4~고3 학생 5,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5.1점으로 OECD 국가(평균 100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달프고 힘든 생활의 결과다.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53.9%에 불과하다. 외로움을 느낀다가 16.7%로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다.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은 부정적인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긍정적인 자기평가 기준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 기준에는 지나치게 관대해 자존감도 낮다. 실패의 원인을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부정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 문제다. 상황이 발생하면 해결보다는 회피하거나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감정 변화, 손톱 물어뜯기, 섭식장애, 탈모, 피로 호소, 짜증, 수면장애, 무기력, 외로움 등도 행복지수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자존감이 심하게 떨어지는 청소년들은 비행, 폭력, 약물 복용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질 우려가 크다. 부모가 청소년을 행복한 자녀로 만들려면 결점을 사랑하고 수용하여야한다. 항상 자신감을 갖고 신뢰하면서 생활해 가도록 여건을 만들어준다. 자신이 판단하여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청소년의 말을 우선 들어보고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같이 청소년과 운동이나 놀이를 하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어간다. 청소년을 지도해 갈 때에 청소년이 부모와 지도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바람직한 지도결과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갈 수 있다.

참고문헌

1. 정하성, 청소년이해론, 서울: 한국학술정보,2010.
2. 정하성외1인, 청소년문화론, 서울: 21세기사, 2010.
3. 정하성외1인, 청소년프로그램의 실제론, 서울: 학문사, 2003.
4.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통일 후 농어촌청소년 지도방향, 서울: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5. 한국청소년 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6.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2010.
7. 홍봉선 외1인, 청소년복지론, 서울: 공동체, 2010.